

에너지 소비 일정한 법칙!?



전자제품 덕분에 우리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. 어디에도 부작용이 없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, 역시 지구의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. 전자제품의 보급은 고령화 사회나 복지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입니다. 하지만 지구는 유한합니다.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를 들어,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있으면 편하니까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, 짐을 옮기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양보하고, 건강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? 몸도 하나의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.

**용솟음치며 시작하면 신도 용솟음친다.
신이 용솟음치면 어디까지나 세계 용솟
음치게 한다.**

지도말씀 1907.5.30

이 세상을 ‘즐거운 삶의 세계’로— 이것은 궁극적인 주제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성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인간의 삶이란 어떻게 용솟음치면서 살아가느냐, 얼마나 서로 도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.



그 모습을 보시고 신도 용솟음치십니다. 신이 용솟음치면, 만물의 생명 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, 식량의 안정이나 삶의 평온 등 모든 질서의 근본이 됩니다. 흥작으로 당황하고, 과도한 풍작으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평화로운 세계는 신과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되는 것입니다.

<https://www.tenrikyo.or.jp/kor/>

